

신지에 “최우선 목표는 신인왕”

웨그먼스 LPGA 2위에 7타차 완벽우승 신인·상금·올해의 선수 랭킹 모두 1위 7월 US오픈 등 ‘여제’ 오초아와 진검승부

“아직 다른 목표는 없어요. 그냥 올해의 신인 선수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여자골프의 지존 신지에(21·미래에셋)는 29일(한국시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웨그먼스LPGA에서 우승한 뒤 시즌을 시작할 때와 2승을 올린 지금에 와서도 달라진 목표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지에에게 신인왕이라는 타이틀은 랜지 어울리지 않는다.

2006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뛰어든 신지에에는 한국무대에서 이미 19승이나 올렸고 2008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정회원인 아니면서도 3승을 수확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2009년 마침내 LPGA 투어 정회원 자격을 얻은 신지에에는 신인으로서 올 시즌을 시작했지만 벌써 2승을 거뒀다. 일부에서는 신지에가 본격적으로 미국 무대에 뛰어 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대회 일정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시즌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신지에의 기록은 이러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

신지에에는 이날 우승으로 신인왕 포인트 150점을 보태며 798점을 쌓아 위성미(20·393점),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370점)와 격차를 더욱 벌려 놓았다.

견고한 샷을 날리며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신지에가 신인왕을 놓친다면 이번이라고 할 정도로 이 부문에서만큼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골프팬들의 관심은 신지에가 상금왕을 거머쥐며 새로운 여제로 등장할 수 있을지에 집중되고 있다.

신지에에는 웨그먼스LPGA 우승으로 100만 달러를 돌파하며 상금 랭킹 1위(100만1천달러)로 올라섰고 그 뒤를 크리스티 커(미국·84만달러), 김인경(21·77만4천달러), 로레나 오초아(멕시코·71만1천달러)가 쫓고 있다. 신지에에는 또 올해의 선수 포인트에서도 30점을 더한 90점으로 1위로 올라섰다.

상금왕 경쟁자 중 무시못할 선수는 당연히 세계랭킹 1위 오초아다. 오초아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않아 상금을 추가하지 못했지만 신지에와 함께 시즌 2승을 올렸다.

오초아는 2007년 8승, 2008년 7승을 거두며 1인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지만 올해 성적은 작년과 재작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도	선수명	대회명
2007	김미현	투어코리아대회
2007	김미현	코닝클래식
2007	박지현	제이비투어여자오픈
2007	이선화	HSBC대륙올림픽대륙대륙
2008	이선화	코닝클래식
2008	신지에	웨그먼스LPGA
2008	박인비	US여자오픈
2008	오지영	스카이모터볼대회
2008	신지에	제이비투어여자오픈
2008	김인경	로스토크스오픈
2009	신지에	웨그먼스LPGA
2009	오지영	제이비투어여자오픈
2009	김인경	스카이모터볼대회

하지만 신지에에는 상금왕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신지에에는 “아직 큰 대회가 많이 남아 있다. 하반기라면 상금왕을 노려 보겠지만 아직도 내 목표는 신인왕이다”라고 말했다.

7월로 접어드는 LPGA 투어는 제이미 파오웬스 코닝클래식을 시작으로 US여자오픈, 에비앙 마스터스, 브리티시여자오픈 등 특급 대회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특히 US여자오픈과 에비앙 마스터스의 총 상금은 325만달러, 브리티시여자오픈은 220만달러로 일반 대회 총상금의 1.5~2배에 이른다. 시즌 2승으로 상승세를 탄 신지에가 상금왕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7월이 다가오고 있다. /연합뉴스



신지에가 29일 오전(한국시간) LPGA 투어 웨그먼스대회 최종 라운드 18번홀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후 양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응원해주는 미국팬들 많아 신기했어요”

■ 신지에 우승 인터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웨그먼스LPGA에서 시즌 2승째를 거둔 신지에(21·미래에셋)가 신인왕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2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피츠버그의 로커스트힐 골프장(파72.6천 36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를 기록하며 2위와 7타 차로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한 신지에에 인터뷰에서 “아직 큰 대회가 많이 남아 있다. 신인왕이 목표가 때문에 상금에 대한 욕심보다 신인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우승 소감은.
▲매우 기쁘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중하는 데나 플레이 면에서 어려웠는데

다른 선수들과 워낙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비가 도움이 된 것 같다. 다 같이 안 좋은 조건이 된 셈이다.
-첫 우승 때와 느낌이 다른지.
▲모건 프레셀과 한 조여서 미국 갤러리들이 함께 했는데 나를 응원하는 미국 분들도 많이 신기했다. 미국 본토에서 나를 더 알릴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이번 우승은 의미가 크다.

-우승을 예상한 때는.
▲비 때문에 우승 확신은 어려웠지만 17번 홀에서 버더를 하고 나서였다.
-13번과 14번에서 연속 보기가 나왔는데 그때 기분은.
▲그 두 홀이 가장 어려운 홀이었다. 어려운 홀을 보기로 잘 막았다고 긍정적인로 생각했다.

-시즌 2승 했는데 상금왕에 대한 욕심은.
▲시즌 시작할 때 목표도 신인왕이었고 지금 와서 달라진 것은 없다. 하반기에 큰 대회가 많이 남아 있어 상금왕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반기 가서 기회가 온다면 상금왕을 노려 보겠다.
-오지영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우승 세리머니를 해줬다.

▲비가 와서 옷이 젖어 있었는데 샴페인 세례까지 받아 더 추웠다. 이왕 젖은 김에 지영을 꼭 안아 주려고 했는데 도망가더라.
-퍼트 레슨을 따로 받았다고 하던데.
▲백도널드 LPGA 챔피언십 때 캐서린 힐(호주)의 코치로부터 레슨 받았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주위에서 지켜보는 분들이 퍼트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다. /연합뉴스

‘위기의 KIA’ 상승무드 탈까



부상병동에 타선 침체·잡은 실책 부담

삼성·한화 원정 6연전... 3위 수성 고비

부상과의 씨름중인 KIA 타이거즈가 3위 수성의 종대한 고비를 맞았다.

지난주 홈 6연전에서 2승3패1무로 부진했던 KIA 타이거즈가 원정 6연전을 위한 대장정에 올랐다. 상대는 6위 삼성과 8연패의 부진에 빠져있는 최하위 한화다. 상대전적은 각각 6승3패, 5승3패1무.

순위와 상대전적으로는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KIA는 ‘부상과 타선 침체’라는 내부의 적과도 싸움을 벌여야 하는 만큼 만만치 않

은 원정길에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현재 KIA의 재활군 명단에는 지난해 원투 펀치로 활약했던 윤석민·이범석은 물론 타선을 굳게 지키던 채종범·이용규·김원섭·장성호·김성민의 이름이 올라 있다.

크고 작은 부상으로 핵심 전력들이 대거 이탈한 가운데 ‘타선의 핵’ 최희섭·나지완·김상현의 ‘한방’도 타지 않고 있다. 지난주 6경기에서 최희섭은 0.190의 타율을 기록했고, 나지완 역시 타율이 0.190에 머물렀다.

그나마 김상현이 0.286의 타율을 기록했지만 6경기에서 세 선수가 합작한 타점은 4점에 불과했다.

타선 홈런 순위 1·2·3위에 랭크된 이들의 홈런포도 잠잠했다. 지난주 안치홍과 홍세완이 기록한 홈런 2개가 팀 홈런의 전부였다.

0.254의 타율로 시즌 내내 팀타율 부문에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KIA의 최근 6경기 평균 득점은 3.7점, 이에 반해 평균 실점은 5.5점을 기록했다.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실책이 마운드에 부담을 주고 있다. 내·외야를 가리지 않고 수비에서 실수가 속출하면서 KIA는 팀 실책 부문에서 1위(59개)를 달리고 있다.

타자들의 동반 침체 속에 윤석민의 누수가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연승
1	SK	43	26	5	0.581	3승
2	두산	40	28	2	0.571	2패
3	KIA	38	31	4	0.521	1승
4	롯데	35	38	0	0.479	4승
5	히어로즈	34	36	1	0.479	1패
6	삼성	34	39	0	0.466	2승
7	LG	32	39	3	0.432	4패
8	한화	24	43	3	0.343	8패

23일 선발로 예정됐던 윤석민은 어깨 근육이 뭉치면서 로테이션을 거른 뒤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결국 26일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28일 윤석민이 빠지면서 KIA는 ‘백전노장’ 이대진을 급히 마운드에 내세웠다.

필요한 코너워크를 앞세운 이대진은 노련한 투구로 히어로즈 타선을 5이닝 무실점으로 잠재우며 통산 98번째 승리를 챙겼다. 팀은 3연패에서 탈출했다.

불펜에서 완벽피칭을 선보인 광정철의 활약도 돋보였다. 선발에서 불펜으로 자리를 옮긴 광정철은 지난주 3경기에 나와 7과 3분의 2이닝동안 3피안타 4사구 10탈삼진 1

실점의 투구로 1승을 챙겼다. 평균자책점은 1.17에 불과했다.

윤석민의 공백이 생기면서 광정철의 선발진 재합류를 고려했던 조병현 감독은 이대진의 선전으로 한걸 다양한 마운드 구성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4일 2군으로 강등시켰던 좌완 진민호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만큼 엔트리 등록이 가능한 4일 이후 마운드 재구성도 예상된다.

다음주부터는 부상병들의 귀환도 이뤄진다. 그만큼 7월 대약진을 위해 이번주는 KIA가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다.

간수치가 상승하면서 병원에 입원했던 김원섭은 29일 퇴원과 함께 다음주 팀 합류를 목표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윤석민도 병원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어 그라운드로 돌아오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이용규의 복귀도 가시화 되고 있는 등 KIA는 전력 재정비를 위한 마지막 위기에 직면했다.

집중력 있는 승부와 철벽 수비가 원정 6연전에 나서는 ‘위기의 KIA’에 종대한 수제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임창용 日 별되다

한국선수 사상 첫 팬 선정 올스타

임창용(33·야쿠르트 스왈로스·사진)이 한국 선수로는 처음 일본 프로야구에서 팬이 뽑은 올스타에 선정돼 ‘별들의 잔치’에 선다. 일본 야구기구(NPB)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팬 투표 최종 결과에 따르면 임창용은 29만9천 835표를 획득, 센트럴리그 세이브 1위 나가카와 가쓰히로(히로시마·20세이브)를 3만8천표 이상 여유 있게 따돌리고 올스타전에 나설 리그 마무리 투수로 뽑혔다.

2004년 일본에 간 이승엽(33·요미우리 자이언츠)을 필두로 ‘나고야의 태양’으로 인정받았던 선동열 삼성 감독(당시 주니치), 오릭스에서 뛰었던 구대성(한화)등 한국 선수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 활약했지만 모두 감독 추천 선수로 올스타전에 경험했다. /연합뉴스

